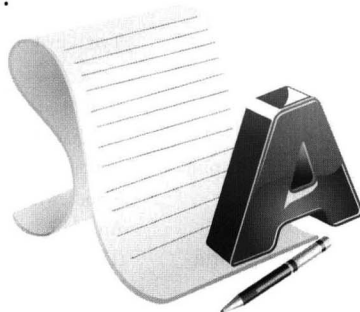


## 번역현실의 오해와 진실의 경계에서 번역을 바라보는 외부의 눈

번역을 잘 하려면 해당 외국어는 물론이고 우리말까지 잘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지난 4월 말에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보았다. 글솜씨를 인정받은 소설가들이 번역에 진출하는 현상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소설가들의 번역 진출은 번역 문학의 질을 높여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기사는 ‘작가 번역가’ 라면 무조건 번역을 잘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언젠가도 말했지만, 신문기자도 글솜씨라면 소설가에 못지 않을 거라고 자부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의 글이 소설가의 글보다 훨씬 읽기 편하다. 그럼 기자도 번역을 무조건 잘 할까? 내 경험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글\_강주현



### 번역의 출발점, '단어와 문체 선택'

한겨레 번역강좌에는 현역 기자나 기자를 지낸 사람이 간혹 수강한다. 그들이 다른 수강생에 비해 번역 능력이 뛰어났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원문에 쓰인 단어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가나 기자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글을 쓴다. 따라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의 출발점은 '개념'이 아니다. 번역가가 마음대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번역에서는 이미 단어가 주어졌다. 주어진 단어에 해당되는 우리말 단어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번역은 단어의 1대 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번역가들에게 단어의 틀에 갇히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 Suppose you walk into your living room and find one of the windows broken ...에서 Suppose 이하는 한 단락 내에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번역해보라 하면, 거의 모두가 “당신이 거실에 들어갔는데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라고 번역한다. 틀린 데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번역이다. 하지만 조금 미흡하다. 어디가 미흡할까? 이 글을 더 읽기 전에 스스로 찾아보자. 영어에서는 Suppose ... 로 문장이 시작되면서 독자에게 예를 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끝까지 읽지 않으면 그 문장이 예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말 번역 앞에 ‘가령’, ‘예컨대’ 등과 같은 단어를 넣어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단어의 틀에 갇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문학 번역은 의미뿐 아니라 문체까지도 옮겨야 하므로 소설가들이 맡았을 때 어색하지 않은 좋은 번역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소설가의 번역계 진출을 환영했다. 그런데 이 편집장이 말한 ‘문체’가 어떤 뜻에서의 문체일까? 수사학적인 의미에서의 문체이기

도 할 것이고, 일반적 의미에서 작가의 냄새를 뜻하는 문체를 뜻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체는 문장의 조직이고, 그 조직은 단어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Of such modes of existence there are not a few와 There are not a few of such modes of existence는 구조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문체까지 번역해야 한다면 이들의 번역이 어떻게 달라질까? 극단적인 예는 결코 아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보면 와일드는 습관처럼 There is(are) ... 구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구절을 문두에 둔다. 와일드의 문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까? 굳이 둘을 구분해서 번역해야 한다면 '이런 존재 양식이 적지 않다' 와 '적잖은 이런 존재 양식이 있다' 가 되겠지만 꼭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번역가라면 누구도 후자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내친 김에 문체 번역의 어려움을 좀더 말해보자. 'Theory of Everything' will explain the physical world we see around us—people and planets, cars and comets, sand and stars라는 문장을 보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문체를 찾아보라. 뒤에 나열된 단어들의 두운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문장을 볼썽 내밀고 읽어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런 미세함을 눈치 채지 못할 것이다. 여하튼 이런 미묘한 나열을 어떻게 번역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빼는 재주를 가진 소설가도 원문에 쓰인 단어를 살리면서는 우리말로 두운을 맞춰가며 번역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문체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 정확한 번역현실 파악 필요

5월 17일, 교육부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학 토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논문형 작품만 학위논문으로 인정해온 관행을

비껴 동서양 고전을 번역하더라도 박사논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해마다 번역 전문가 1,00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피식하고 냉소가 흘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앞부분에는 전적으로 환영이다. 그런데 번역 전문가 1,000명? 이런 발표를 한 사람의 생각에 번역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대한민국에 번역 전문가가 1,000명이나 될까? 그것도 매년 1,000명을 선발할 정도로 번역 인력이 양성되어 있을까? 이렇게 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인문학적 방식이라면, 조금이라도 속을 이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거라고!

내친 김에 하나 더 지적하자. 지원금이 1인당 500만 원이란다. 물론 그 자체로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주는 500만 원일까? 그냥 툭 던져본 말일까? 국정 브리핑이란 웹사이트에서 무책임하게 말할 리는 없겠지만 1,000명씩, 500만 원이면 1년에 50억이다. 인문학 진흥계획이 10년 간 계속된다니 고전을 앞으로 1만 권을 번역한다는 걸까? 대단한 프로젝트다. 여하튼 500만 원이 한 작품을 번역하는 데 지원하는 액수일까? 그렇다면 번역을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까놓고 말해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웬만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연구비가 얼마인가? 번역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번역의 가치를 확대하는 이중적 자세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

◎애초에 지난 호에 썼던 "번역, 배우면 실력이 늘까?"의 후속편을 쓰려 했지만 이른바 전문 번역가로서 답답한 기사를 보아 이 글을 썼습니다.

강주현님은 언어학 박사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케르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